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18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3.10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료부, 재활지원센터, 통합의료센터, 경영지원센터 2024년 사업계획 설명회

(10.17 / 10.20)

을 한해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2024년 주요 사업 목표 및 핵심결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장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24년 사업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강윤석 위원님의 진행으로 진료부, 재활지원센터, 통합과 경영지원센터로 나눠 진행하였고, 각 팀의 주무이상 중간관리자들이 참석했으며, 그 첫번째 시간으로 2024년 사업계획 1단계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전환재활서비스 박종균 교수 특강 (10.24)



척수장애인 최초 재활학 박사며 현재 장애인의 삶 대표, 나사렛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박종균 교수님께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전환재활서비스에 대해 특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도장애와 재활, 국내외 중도장애인재활체계, 우리나라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서비스, 그리고 전환재활서비스와 동료상담사의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재활체계에서, 중도장애인 재활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해외에는 너무나 많은데, 우린 그걸 꿈을 꾸지 못하고 도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도장애인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임을 아쉬워 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중도장애에 관련된 현상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중도장애인의 재활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환재활서비스의 필요성, 그리고 재활코치의 역할에 대해 해외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며 1시간 넘는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이날의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재활치료2팀이 함께 공유한 작업치료 사례 발표회 (1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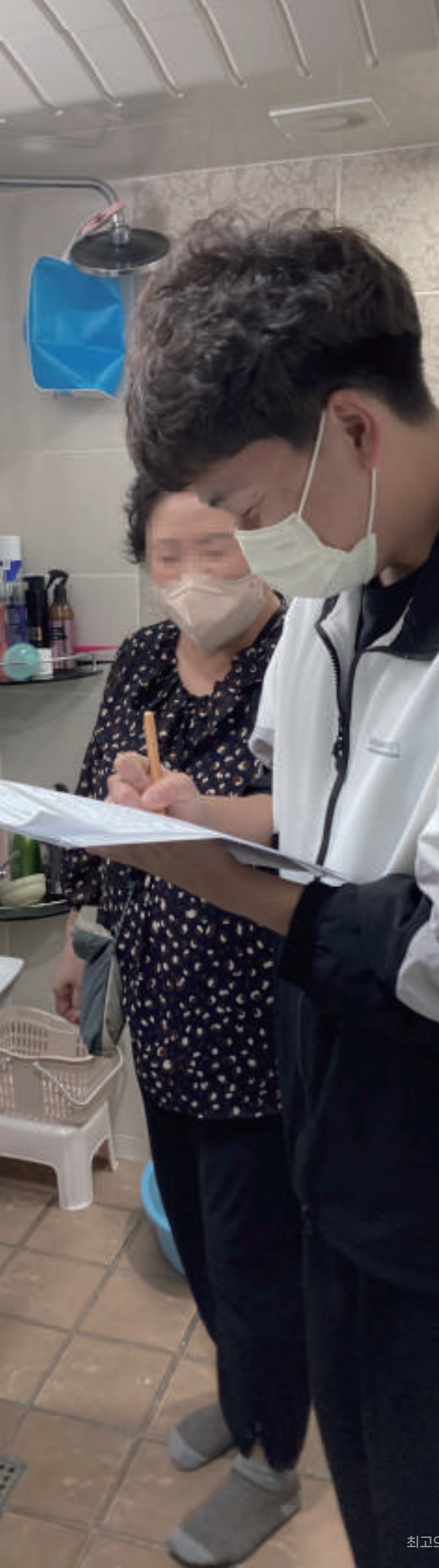


재활치료2팀인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그동안 바쁜 치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치료활동의 사례를 통해 논문과도 유사한 사례집을 준비하였고, 이를 작업치료사 선생님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전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활병원의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작업치료에 대해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과정을 타부서와 서로 공유함으로써, 개인도 성장하고 부서도 성장하고, 병원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사례 발표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일방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생각을 풀어 놓는데 있습니다.





준비된 퇴원

참여자의 일상으로 회복 준비를 위한 가정환경평가 (10.05 / 10.16)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퇴원 전 참여자 가정환경평가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개선 방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11월 퇴원 예정이신 윤00님과 엄00참여자에게서 가정환경평가를 신청해주셨습니다.

먼저, 윤00 참여자는 거주하고 있는 LH 임대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안전바 등 주거환경지원이 가능하여 퇴원 전 가정환경평가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방향에 대해 조언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재활치료 2팀 최지용부파트장과 사회사업팀 이하늘팀원이 윤00 참여자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자는 현재 보호자의 도움 하에 보행 가능하며, 자택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침실, 화장실 입구, 화장실 내부 등 곳곳에 안전바 설치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또한 욕조제거를 통해 화장실 내 안전공간을 확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교체를 통해 독립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야간센서등을 화장실 앞에 설치하는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엄00 참여자께서도 퇴원 전 자택으로 가정환경평가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방향에 대해 조언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재활치료 1팀 서영득 팀원과 재활치료 2팀 허영재 팀원, 사회사업팀 이하늘 팀원이 윤00 참여자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평가하였습니다. 엄00 참여자도 현재 보호자의 도움 하에 보행 가능하며, 자택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화장실 내부 등 곳곳에 안전바 설치를 필요로 하였으며 침실 내 부딪힘 방지 스티커를 부착을 권유드렸습니다. 또한 퇴원 후 통원치료 시 참여자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본원까지 안전하게 가는 길과 이용법을 안내 및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구매를 안내하였습니다.

윤00, 엄00 보호자께서 본원에서 담당 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 가정환경평가를 통해 주거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퇴원 전 주변 환경을 하나씩 점검하고 계획하는 윤00님과 엄00님의 '준비된 퇴원'을 응원합니다.





휠체어스쿨_외부활동 (10.10)

김OO외 5명의 참여자와 해운대해수욕장 및 해운대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중 초급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외부 환경에서 긴 거리를 최소한의 도움으로 이동해본 박OO, 염OO님은 휠체어를 미는 방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휠리(wheelie)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최근 전동휠체어를 구매하여 연습중인 윤OO님(brain)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부 환경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와 함께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심화과정 (10.17 / 10.24)

박OO님과 5명의 참여자는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주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심화과정 수업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PPT에 담은 방법과 주의할 점, PPT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관련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7일에 받았습니다. 마지막 차시인 24일에는 전 시간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여 자유주제로 각자 5~10분 분량의 내용을 만들어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뒤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한명씩 돌아가며 참여 소감을 이야기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중 나와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과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한 참여자 분들이 퇴원 후 센터의 소속 강사 또는 활동가로서의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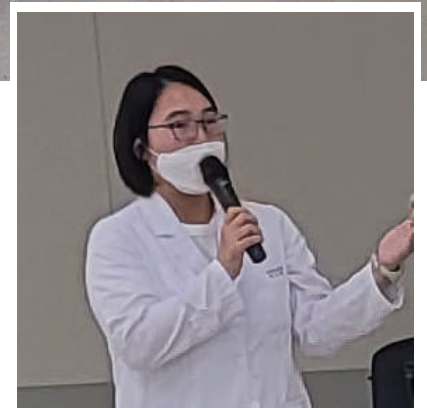
자택방문, 주거환경점검 밖으로한걸음씩 (10.04)

빠른 일상 복귀를 계획중인 박OO님과 밖으로한걸음씩 프로그램을 주거환경평가와 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5개월 만에 가보는 집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는 신체적 변화에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현관 및 화장실 턱, 안전바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엘리베이터 진입로에 있는 가파른 경사로는 현재 상태로 혼자 이용하기 힘들어 입원 기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병일이 길지 않지만 일상 복귀 의지가 높은 참여자인 만큼 휠체어 스킬 훈련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준비된 퇴원이 가능하도록 함께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제도, 알기 쉬운 지역사회자원 안내 사회사업팀 이지혜 부팀장 (10.07)

참여자의 입원부터 퇴원 준비, 퇴원 이후까지 일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상담, 프로그램, 국가보장제도와 지역사회자원연계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참여자와 강사 간 상호 질문과 답으로 활발히 이야기 나누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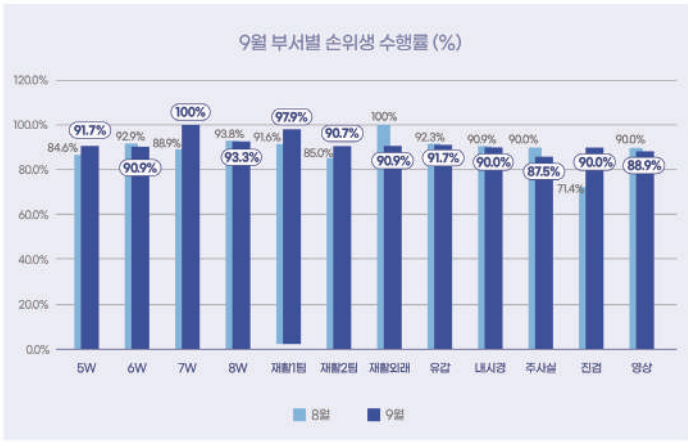
슬기로운 재활생활

장애인 직업과 보조공학기기 활용에 대한 특별한 강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의 정의와 여행을 갔을 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종류 및 보조기기센터에 대해 함께 알아 가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의 직업과 보조공학기기 활용 재활코치팀 서인석 주무 (10.28)





9월의 손위생 부서였는데, 추석연휴와 일정으로 사진촬영이 늦어져서 10월 소식지에 같이 올립니다.

‘7층 생활재활센터’ 이달의 손위생 우수부서 (09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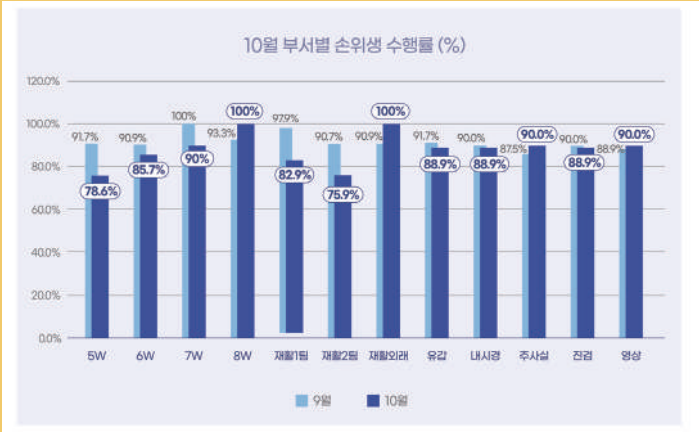
9월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7층 생활재활센터가 100%로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8층 생활재활센터 & 재활외래’ 이달의 손위생 우수부서 (10.24)

10월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8층 생활재활센터와 재활외래가 100%로 공동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위생을 했는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손쉽게 모두를 위한 생활습관!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손위생은,

손쉽게 모두를
위한
생활습관

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3년 올해의 손위생 우수부서 선정 결과 발표 (10.26)

■ 선정 방법

2023년 1월 ~ 10월까지 총 10개월간 환자 접점부서의 손위생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진단검사의학팀 / 7층생활재활센터 / 재활외래
이렇게 세 부서에서 동일하게 각 두 차례씩 손위생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음.
세 부서 중 손위생 수행률 평균값이 가장 높은 부서를 '올해의 손위생 우수부서'로 선정함.

■ 선정 부서

진단검사의학팀 (손위생 수행률 89.3%)

■ 시상

올해 개원기념식에서 상패 및 상금 전달

손위생 수행률 (%)				
월	부서	진단검사의학팀	7층 생활재활센터	재활외래
1월		93.3 %	85.0 %	80.0 %
2월		86.7 %	100 %	83.3 %
3월		100 %	80.0 %	84.6 %
4월		93.8 %	83.3 %	85.7 %
5월		93.3 %	66.7 %	80.0 %
6월		87.5 %	88.9 %	86.7 %
7월		88.9 %	94.1 %	83.3 %
8월		71.4 %	88.9 %	100 %
9월		90.0 %	100 %	90.9 %
10월		88.8 %	90.0 %	100 %
평균		89.3 %	87.6 %	87.4 %

2023년 1월 ~ 10월까지 총 10개월간 환자 접점부서의 손위생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진단검사의학팀 / 7층생활재활센터/ 재활외래 이렇게 세 부서에서 동일하게 각 두 차례씩 손위생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부서 중 손위생 수행률 평균값이 89.3%로 가장 높은 진단검사의학팀이 2023년 올해의 손위생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올해 개원기념식에서 상패 및 상금 전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손위생 잘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함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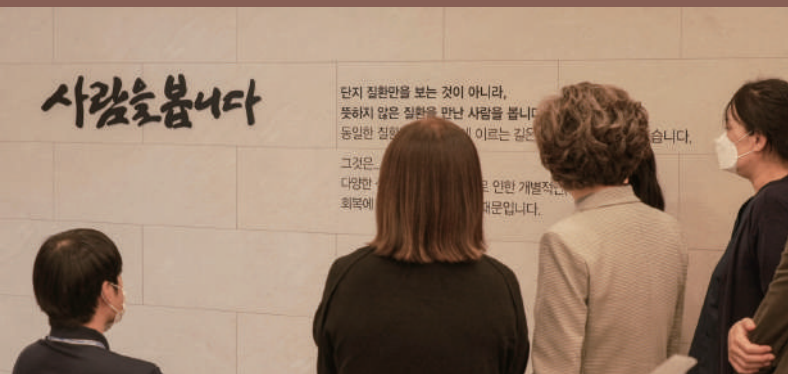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약식 (10.25)

동명대학교 LINC3.0 사업단(단장 이기수)에서 저희 병원을 방문하셔서 병원을 견학하시고 난 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 프로그램 '우유찜케이크 만들기' (10.18)

일상재활센터 및 외래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점 획득 게임 '지는 가위바위보'로 가볍게 몸을 풀고 우유찜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박력분, 베이킹파우더, 소금, 설탕, 우유 등을 계량하여 잘 섞어주고 머핀 틀에 넣고 견과류 토핑을 올려 찜기에서 15분간 찜주면 끝!

전자저울로 계량하며 덧셈, 뺄셈을 해보고 반죽을 손수 저어 디저트를 완성함으로써 성취감도 향상하고, 맛있는 디저트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힐링 타임도 만들어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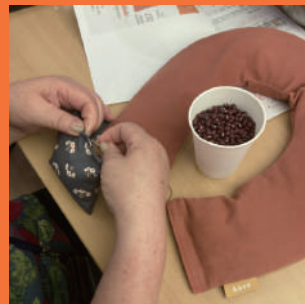
이벤트 프로그램 '어깨 찜질팩 팔주머니 만들기' (10.24)



이번 달엔 건강소품인 팔 찜질팩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팔은 붓기 제거 노폐물 해소 어깨 통증에 좋아 참여자 및 보호자의 어깨나 쌓여있는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을 공감하고 응원해주는 덕스 아이스브레이킹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더 풍성하게 더해주었습니다.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재활치료1팀
김민수
부파트장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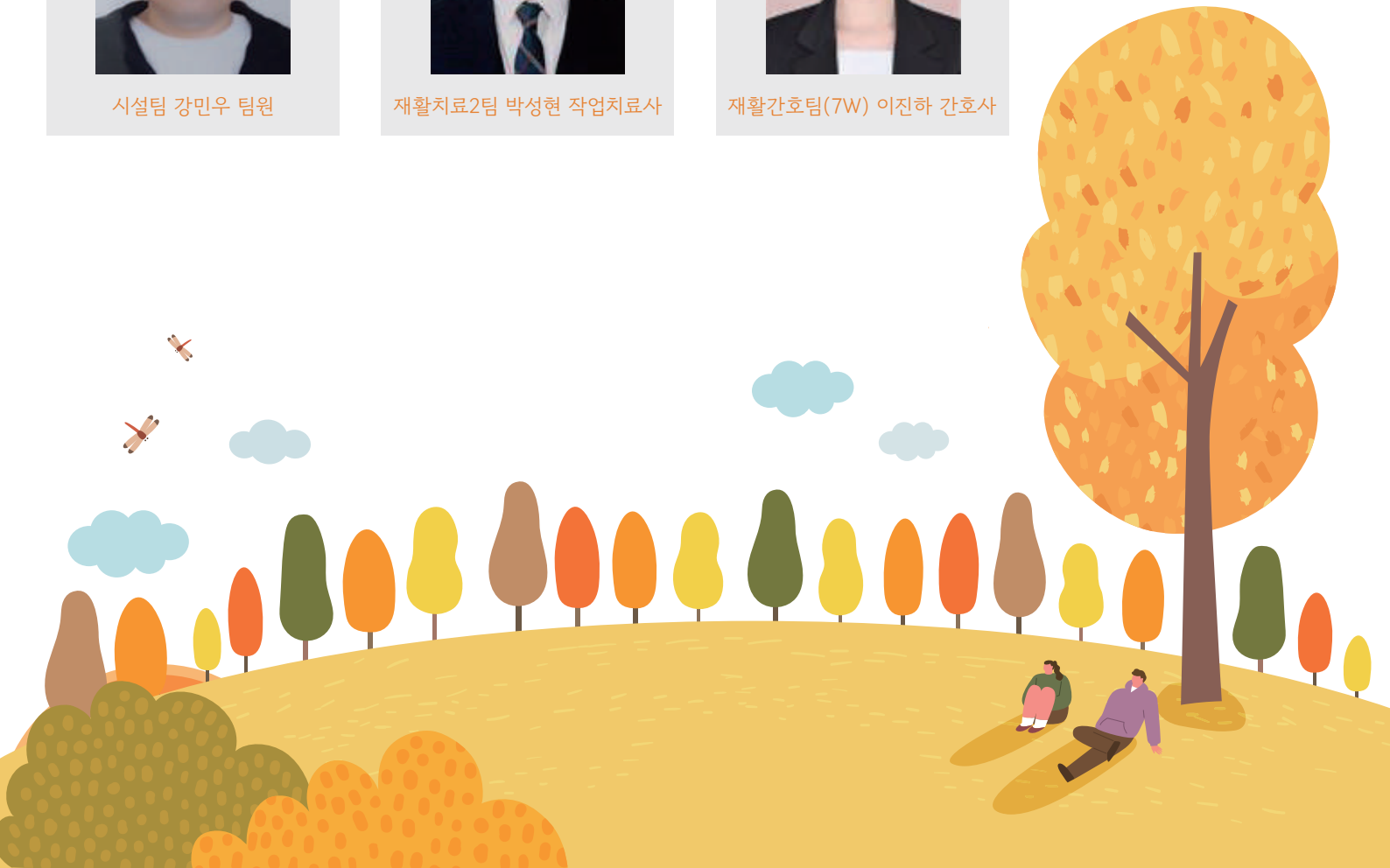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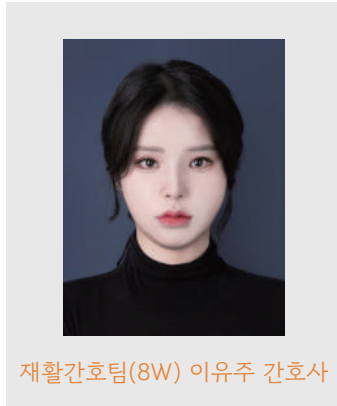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 자립왕 수상 (10.06)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수 출석왕에는 박〇〇님, 윤〇〇님이 선정되었고, 우수 자립왕에는 박〇〇님, 정〇〇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10월의 신규입사자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조○○ 참여자’, ‘한○○ 참여자’ 치료비 전달식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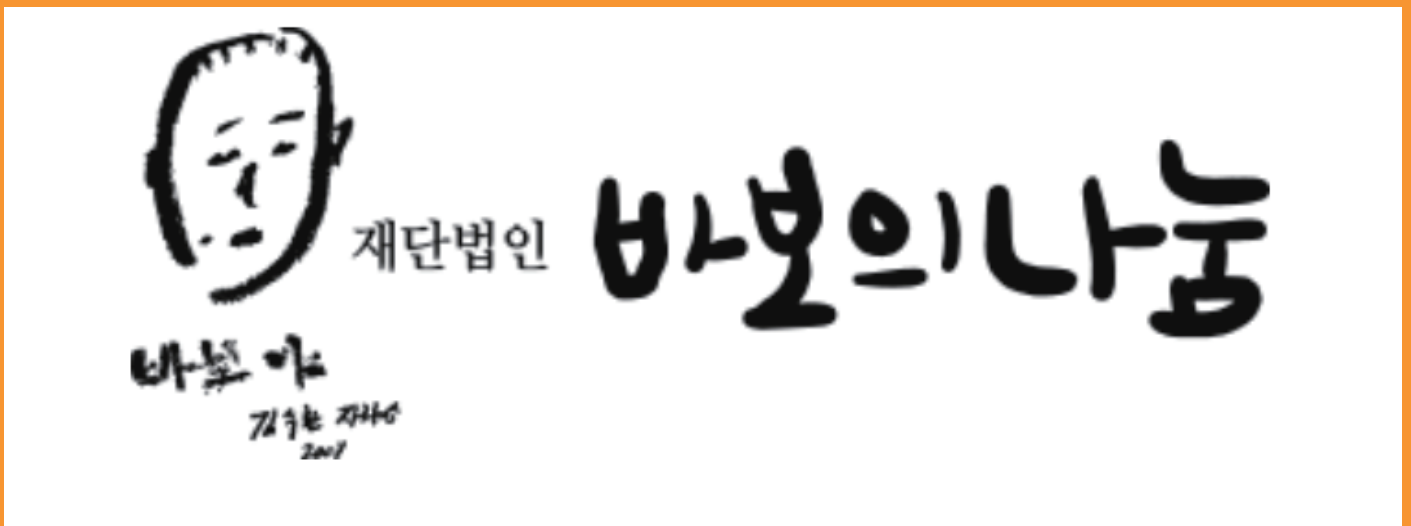
조○○ 참여자, 한○○는 저소득층으로 비급여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여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외부재단에 치료비 지원을 의뢰하셨습니다. 그 결과 8월, 10월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5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받아, 비급여치료인 인지치료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으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바보의 나눔

‘김○○ 참여자’ 치료비 전달 (10.20)

사회사업팀에서는 참여자와 가족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재)바보의 나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지원사업에 김○○님의 치료비,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고 대상으로 선정되어 라디오 방송, 모금을 통해 약 6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복합적 문제,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 지속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치료의지에 힘을 보태어 드림으로써 전동휠체어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부터 비급여치료비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미용프로그램 (10.17 / 10.20 / 10.24)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0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지나간 문장

김연희 원장님께서 임명장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개월 전, 해운대 바다와 동백섬의 아름다움에 함께하고 싶어서, 그리고 치료실 문밖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에 마음이 동해서, 부산이라는 낯선 도시, 해운대나눔 과행복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멘트가 될 것이 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처음, 치료실에 가득 차 있는 재활치료를 받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가슴으로 다 가오는 큰 무게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활의학을 처음 시작하였던 전공의 시절,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읽으며 재활의학을 전공하는 치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장애는 마치 용광로와 같다. 많은 사람들은 그 뜨거운 용광로 가마 속에서 깨 어진다. 하지만, 그 극한의 불속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진흙이 마치 아름답은 도자기가 된 것처럼, 이전을 기억할 수조차 없는 고귀한 새로운 삶이 시작 된다.

장애를 견디어야 하는 재활의 과정과,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사회복귀의 길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고,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 과정을 함께 하는 재활의 치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용광로 안에서 깨어지지 않고 견디어 내어, 드디어 멋진 도자기가 되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 재활의 치료자들은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요. 사회에 복귀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이후 평생동안에도, 장애를 가지고 이 사회속에서 싸워가며 살아가야 하는 분들께 우리 재활치료자는 그들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치열하게 치료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의 움직임, 한마디의 말이라도 더 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삶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일차적 역할입니다.

때로는 거친 세상속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마치 절벽에서 새끼새를 던져 훈련하는 어미새의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곳에서 너무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안전장치를 더 촘촘히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람있는 직장을 원하십니까? 실력을 갖추고 이들의 재활에 동참하는 재활치료자로서의 길을 가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만족스러운 직장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더욱 아름다운 재활의 등지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억과 기억 사이

모든 추억은 결국 기억의 흔적이다.

추억이란 지나간 시간의 기억으로, 항상 좇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의 감각에 우연히 닿으면 언제 있었냐는 듯 어느새 그 시간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추억하게 됩니다.

__플랜투비《1°C 인문학》(다산북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차가 없었다. 자가용이 없다는 건 여행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당시 집은 부유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가난했다는 단어가 더 어울렸고, 그렇게 방 한 칸에서 네 식구가 보냈던 기억이 어렴풋하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두 형제는 별다른 대화도 사건도 없이 유년기를 보냈다. 방이 한 칸에서 두 칸으로 늘어날 때 중학교를 들어갔고, 그 곳에서 두 아이가 대학까지 간절 보면 줄곧 부유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없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추억이 적었다. 과거를 억지로 쥐어짜듯 떠올려도 딱히 없다. 본가 장롱 속 낡은 앨범을 뒤져보면 아버지 계모임에서 간 해금강 유람선 사진이 빛바랄 뿐이다. 동네 뒷산 언덕에서 아버지 품에 안긴 형제들 사진도 있다. 그조차도 나의 기억 속에 없으니 너무 어려서의 여행은 당신에겐 사치일 뿐이었던지 모른다. 어쩔 필름을 사고,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해야 하는 과정도 추억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니 그마저도 용납할 수 없었던 걸까? 오늘날에 폰으로 수십 장을 찍어대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을 했고, 두 초등학교의 아빠가 되었다. 그 사이 나의 아버지는 사진 속으로 들어가셨고, 1년에 한번 쯤 기일에 맞춰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것도 꿈에서.



해금강 유람선 위, 왼쪽이 나다.



동네 뒷산 언덕, 또 왼쪽이 나다.

지금 우리 집에는 차가 2대다. 오랜 된 경차는 출근 전용이고, 오랜 된 승합차는 주말여행용이다. 여전히 집은 부유하지 않다. 가난이라는 단어보다는 낡은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경제적 표현을 대신해본다. 자가용이 있다는 건 여행에 대한 추억이 많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뿐, 자동차가 곧 여행이라는 의미를 뜻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말만 되면 나는 자동차에 어린 녀석들을 태우고 어디든 나간다. 사는 곳이 부산이라 주로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간다. 아이들은 지금의 시간들을 분명 기억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녀석들의 어린 시절 '아빠는 부지런히도 우릴 데리고 다니셨구나.'라는 기억을 할 것이다. 추억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우리 집에는 추억이 많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두 녀석들을 1살 때부터 별일 없는 한 매주 주말 집밖으로 나갔다. 가까운 도서관에도 가고, 공원에도 갔다. 부산의 웬만한 곳은 다 가봤고, 경상남도도 함양 빼고는 다 가봤다. 지나가다 잠시 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당일의 목적지로 다녀온 여행을 말한다. 경북, 전남, 전북에도 당일치기로 간간히 갔다. 2년에 한 번씩 강원도도 갔고, 제주도도 서너 번 갔다. 그 작은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4~5번 갔다. 그렇게 주말이면, 여름이면, 계절의 변화 속에서 부지런히 데리고 다녔다. 기억 못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말이다.

추억이 인화되어 액자에 넣어진 사진이라면, 기억은 잘려져 나온 디지털 사진이다. 잘리기 저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몰랐던 것들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지나가긴 했지만 소멸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기억이 익어 추억이 되진 못하지만, 모든 추억은 결국 기억의 흔적이다.

__김이나《보통의 언어들》(위즈덤하우스)

지금 우리 집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많다. 방문 뻑뻑이 붙여져 있다. 아이들과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다. 추억이 인화되어 액자에 넣어진 사진이라면, 기억은 잘려져 나온 디지털 사진이기 때문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저마다의 기억은 다를 것이다. 녀석들의 기억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모든 기억이 익어서 추억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폴라로이드 속의 모든 추억은 결국 기억의 흔적이 된다.

과거가 될 만반의 자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러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센 뒤 사진기를 보고 웃었다.

__김애란《바깥은 여름》(문학동네)

“자, 애들아,
여기 좋네,
여기서 사진찍자!
자 이쪽으로 보고~
하~나~, 두~~울~~, 셋!”

찰칵!

그렇게
과거가 될 만반의 자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러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센 뒤 사진기를 보고 웃었다.



당일치기 전북 남원 오작교



경남 거창, 이제 남은건 함양 뿐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